

마음 열기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릅시다.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1,5절).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진 곳이었습니 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신령하고 영적이라며 서로 분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듣게 하여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를 잊은 교회는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다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불평과 원망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망할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깨달아 은혜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는 **첫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합니다(1절b).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즉,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 덕분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는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은 그들의 잘남이나 연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 또한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고 절제하며 영적으로 투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대신 싸워 주셨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영적 투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2절).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기업을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 만들어 가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 스스로를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역시 그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영적 은사를 두고 서로 분쟁하고 죄를 지었던 고린도 교회도 책망과 회개의 과정을 거치며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좋은 것 뿐 아니라 고난과 환란도,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3-4절).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na를 내려주셨고, 메마른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기와 파, 마늘이 그리다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칼이나 큰돈을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감사할 때, 보이지 않던 은혜가 깨달아지며 심령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풍성히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김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아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더 선명히 보이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지만, 돌아켜보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경험이 있나요?
2. 내가 주로 불평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내가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은혜를 한가지씩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1.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심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2.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3.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FAMILY 나눔

2026년 8월 16일

주셨고 또 주실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